

# GYEONGNAM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Special Theme

## 예술이 함께하는 경남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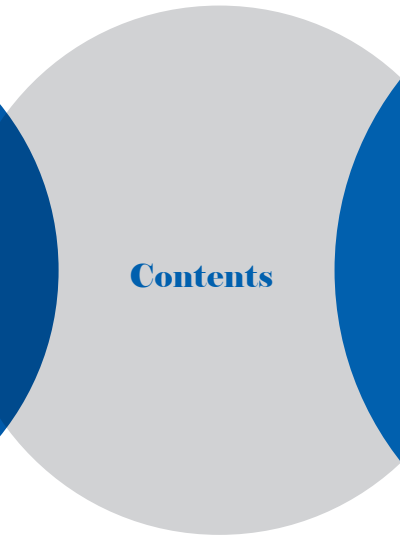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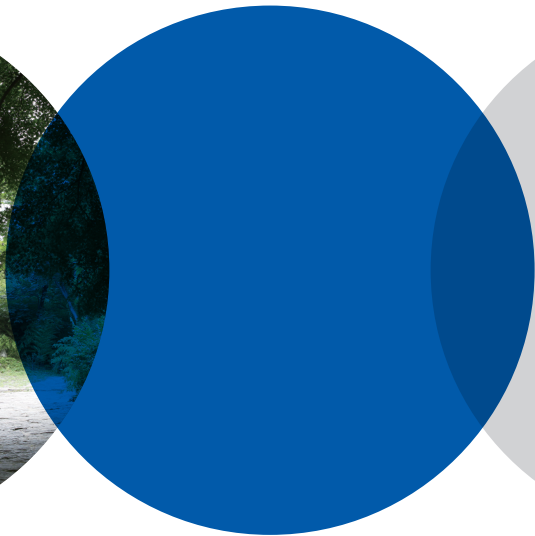
- 01 오감으로 느끼는 예술 축제
- 02 역사와 예술이 깃든 여행
- 03 이야기가 피어나는 그 곳

Volume  
**19**



# Vol. 19 GYEONGNAM MECENAT

발행인 최재호 편집인 한동진 진행 김은아  
 발행일 2015. 08. 19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5 경남은행 3층  
 연락처 Tel. 055 285 5611 Fax. 055 274 1923  
 홈페이지 www.gnmecenat.or.kr  
 기획·디자인 (주)아트인시티 Tel. 055 262 2116



## COVER STORY 광덕종합건설 최광주 회장 & 마산여성합창단 박미경 대표

1963년에 창당한 창원시 마산여성합창단이 지난 7월 23~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회 오리엔탈 컨센투스 국제 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해 금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계 유수의 20여개 합창단이 참가해 실력을 뽐낸 이번 페스티벌에서 마산여성합창단은 우성규의 지휘 아래 '청산별곡', '가시리' 등 한국 전통음악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보여 큰 호평을 받았다. 마산여성합창단 박미경 대표는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광덕종합건설 최광주 회장의 후원 덕분이라고 말한다. 평소 우리지역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최광주 회장이 한국의 수준 높은 합창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올해 처음으로 합창단과 결연을 맺고 연주활동비를 지원한 것이다. 덕분에 마산여성합창단은 연습에만 매진 할 수 있었고 이번 국제 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한국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박미경 대표와 든든한 후원자 최광주 회장이 만나 서로에게 건넨 따스한 한마디 "감사합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청량한 여름하늘처럼 눈부시다.



|                  |                                   |
|------------------|-----------------------------------|
| 인증식              | 0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식                 |
| Special Theme 01 | 06 경남여행 - 하반기 경남 예술축제             |
| Special Theme 02 | 08 경남여행 - 세계적인 조각가 김종영 생가         |
| Special Theme 03 | 12 경남여행 - 소설 등신불의 배경 사천 다솔사       |
| 메세나 칼럼           | 14 지역 메세나 발전 필요성                  |
|                  | 16 문화가 있는 날? / STX 우리회사, 문화가 있는 날 |
| 아름다운 동행          | 20 연암테크와 창원음악협회의 '공장이 무대다'        |
|                  | 22 K2-내서문화포럼의 작은 음악회              |
|                  | 23 경남은행- 한마음병원의 희망프로젝트            |
|                  | 24 무학 굿데이 뮤지엄                     |

### Special Theme 예술이 함께하는 경남여행

- 01 오감으로 느끼는 예술 축제
- 02 역사와 예술이 잇는 여행
- 03 이야기가 피어나는 그곳

|           |                               |
|-----------|-------------------------------|
| Interview | 26 화성지앤아이-창원시 청소년교향악단         |
|           | 30 상화도장개발-(사)대한크로마프연주협회       |
|           | 32 영아티스트 해금연주자 정소레            |
|           | 33 영아티스트 드러머 강병곤              |
| 엔조이컬처     | 34 필갤러리 화예조형                  |
|           | 36 장사도 한국웃칠회화관                |
| 해외공연      | 40 아이네플루트앙상블 베트남 공연           |
|           | 42 다별유스윈드오케스트라 유럽 공연          |
| 메세나 소식    | 44 하동 찾아가는 음악회                |
|           | 46 제2회 어울림 소통전                |
|           | 48 2015 경남메세나 예술단체워크숍         |
|           | 49 문화나눔 행복한 나눔공연              |
| 메세나 단신    | 50 2015 정기총회 / 찾아가는 메세나       |
|           | 51 밴드 개설 / 2015 '경남국제아트페어' 결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식

제 2015-1호  
(사)경남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  
지역 유일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선정되다!

경남메세나협회가 2015년 3월 26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 유일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 받았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2014년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문화예술 후원자와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간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매개하거나 촉진·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활동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육성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인증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프리젠테이션 등을 거쳐 이뤄졌으며, 매개단체로 선정된 3개 단체(경남메세나협회,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한국메세나협회) 중 지역단체로는 경남메세나협회가 유일하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을 받으면 기업과 예술단체 간에 사업추진 및 후원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매개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인증은 경상남도의 경남 미래 50년 사업 중 하나인 '메세나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경남의 문화예술이 한층 더 성장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 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육성·지원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근거 ▲기업 등 '문화예술후원우수 기관'의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개인과 기업이 손쉽게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를 후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후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



창원 케이팝월드 페스티벌



거창 아림예술제



하동 토지문학제



진주 개천예술제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나·는  
뜻밖의 즐거움과 휴식,  
예술이 함께하는  
그 곳...

경남여행

GYEONGNAM  
TRAVEL

# 오감으로 느끼는 경남 예술축제

멀지 않은 곳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꾸준히 발전해온  
경남의 대표 축제들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느껴보자.  
곳곳에 펼쳐진 우리의 문화예술과 다양한 체험거리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것이다.



## 창원 김달진 문학제 9.5-9.6

김달진 시인의 문학적 세계를 매개로 지역 문학의 뿌리를 찾고, 젊은 문인들의 용기를 끌어내어 창작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더불어 활발한 문학 연구 활동과 비평 작업의 활성화로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행사는 전야제, 도서 전시회, 백일장, 문학 심포지엄, 생가 방문 등으로 이어진다.

홈페이지 <http://www.daljin.or.kr/>

## 거창 아림예술제 10.1-10.4

거창한마당 대축제의 일환으로 각 행사장에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군민 노래자랑 등 11개 분과가 경연을 펼치는 단순히 문화예술행사의 차원을 넘어서 군민화합과 단결의 축제로 가을을 만끽하는 축제이다.

홈페이지 <http://www.arimje.co.kr/>

## 진주 남강유등축제 10.1-10.11

임진왜란 시 진주성 투어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유등은 개천예술제에서 유등놀이의 형태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개천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유등놀이가 2000년 10월 대규모 진주남강유등축제로 발전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yudeung.com/>

## 진주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10.1-10.11

천년의 멋과 여유가 살아 숨 쉬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 진주시는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 수준의 관광도시 발전을 지향하겠다는 문화 관광축제도시 육성사업과 맞물려 축제도시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의해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홈페이지 <http://www.kdfo.org/>

## 양산 삼랑문화축전 10.2-10.4

신명을 통해 미래의 동량들이 고대로부터 전승되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양산인의 기질을 전수하는 교육적 틀이며 으뜸도시 양산의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시민참여의 틀이다.

홈페이지 <http://www.yangsanfes.com/>

## 진주 개천예술제 10.3-10.10

한핏줄 하나의 말씨 하나로 사는 터전을 지켜 내느라 온 진주 성민이 목숨을 던져 불꽃을 이룬 임진·계사년 저 장엄한 역사의 힘으로 여기 사도 진주에 시월과 겨레와 신명의 제단을 열고 단군 성조에게 예술 문화의 꽃과 향기를 바쳐 올리기 비롯했다.

홈페이지 <http://www.gaecheonart.com/>

##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10.9-10.11

맥주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남해에서 제대로 즐기는 단 하나의 맥주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축제 기간 중 경남메세나협회 '찾아가는 메세나 음악회'도 열린다.

홈페이지 <http://tour.namhae.go.kr/>

## 하동 토지문학제 10.9-10.11

하동군 약약명 평사리는 토지민속마을을 조성하여 최첨단책, 토지마을, 평사리 문학관, 전통한옥체험과 농업전통 문화전시관이 자리하고 있다. 2001년부터 개최한 토지문학제는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업적을 기리고 전국 문인 문창들이 참여하는 문학 한마당이다.

홈페이지 <http://tour.hadong.go.kr/>

## 고성 민속음악대축제 10.17-10.18

조상들이 살아오던 농사방식과 소리의 전승은 원래의 모습으로 재현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타 지역의 농요들도 농사현장 공연을 흥내 내는 정도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향토민요를 전승보전하기 위해 모를 심고 눈을 매는 공연을 준비한다.

홈페이지 <http://www.nongyo.com/>

## 창원 케이팝월드페스티벌 10.18

K-POP으로 세계가 하나 되는 지구촌 축제로 세계 63개국 글로벌 예선전을 통해 뽑힌 각국 보컬과 퍼포먼스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 전 세계를 열광시킬 지상 최대의 K-POP 축제가 10월 18일 K-POP 의 도시 창원에서 열린다.

홈페이지 <http://kbsworld.kbs.co.kr/>

## 김해 분청도자기축제 10.23-11.1

김해분청도자기축제는 한국도자기 사상 가장 한국적인 미의 원형으로 평가 받고 있는 분청사기 축제로 치러진다.

홈페이지 <http://festival.buncheon.net/>

## 藝香 가득한 꽃대궐 김종영 생가

Writer 진강숙 Photographer 구본수

밤새 내린 비로 촉촉해진 대지가  
싱그러운 기운을 품어낸다.  
도서관을 뒤져 찾아낸 자료와 책,  
남겨진 작품만으로는 미진해 날이 밝자마자  
창원 소담동으로 차를 몰았다.  
도심 아파트 벽면에 꾸며진 불각의 미,  
김종영 생가가 눈에 뜨인다.  
무너진 흙담이 애처로워 한 발짝 다가서니  
생각지 못한 풀냄새 흙냄새가 코끝을 파고든다.  
도심 속 외딴집 김종영 생가의 향기다.

# Kim Chong Yung



어디있나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44번길 33

**300년의 시간** \_\_\_\_\_ 감히 그 긴 시간을 가늠 할 수 없다... 그저 아주 오래전 옛날이라고 할 밖에. 족히 300년은 넘었을 느티나무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나무 아래 벤치에 앉는다. 새벽까지 내린 비 때문인지 자리가 서늘하다. 살짝 하늘을 향해 드러누워 보았다. 비에 깨끗이 씻긴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영커 헤엄친다. 어느 여름, 김종영 선생도 이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으리라. 차가운 벤치에 한기를 느끼며 일어나 자세를 고쳐 앉았다. 눈앞에 비석이 보인다. 선생 증조부의 송덕비다. 처음 창원시 동정동 도로변에 있었던 것을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확장 때문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한다. 후손들은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리가 참 잘 어울린다 싶다.

**소담리 111** \_\_\_\_\_ 한국 조각사의 한 획을 그은 우성 김종영(1915~1982)이 나고 자란 곳이다. 근대 한옥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기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등록문화재 제200호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1926년에 이전·증축하고 1940년에 고쳐지었다 한다. 김종영 생가의 팔작지붕은 근대 문화유산을 떠나 그냥 보기에도 멋스럽다. 살짝 들린 추녀 끝을 바라보면 어느 여인네의 치맛 속 버선코를 들여다보는 듯 살짝 가슴 설레고, 화려한 단청 없이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처마는 화려한 언변보다 침묵을 더 귀히 여기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다는 책 속 김종영 선생을 보는듯하다. 집을 에워싼 물길과 담쟁이, 옛날의 우물까지... 두레박으로 길어 시원한 우물물 한 모금 먹고 싶었지만 우물은 관리가 되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다고 관리인이 들려준다. 아쉬움을 달래며 마당에 열린 방울토마토로 대신^^

**고향의 봄** \_\_\_\_\_ 화려하기보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집, 주변의 개발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이곳의 옛 지명은 새터, 새동네다. 맞다. 이곳은 꽃동네 새동네다. 애국가 보다 자주 불린다는 노래 <고향의 봄>. 이 노랫말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아동문학의 대가 이원수 선생의 노랫말이 이곳에서 나왔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 것이다. 이원수가 기억하는 어릴 적 추억속의 꽃대궐기와집. 읍내서도 볼 수 없는 오래되고 큰 기와집의 부잣집들이 있었다고 회고한다. 큰 고목의 정자나무와, 봄이면 뒷산의 진달래와 철쭉꽃이 어우러져 피고 마을 돌담 너머로 보이는 복숭아꽃 살구꽃이 아름다웠다고... 그 정취를 느끼고 싶었지만 꼭꼭 닫힌 대문.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허나 햇걸을 할 순 없기에 낮은 담 너머로 소리쳤더니 나이 지긋해보이는 여성 한분이 나오신다. 관리를 겸해 세 들어 사신다며 집안 곳곳을 안내해 주신다. 고추, 가지,

화려한 단청 없이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처마는  
화려한 언변보다 침묵을  
더 귀히 여기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다는 책 속  
김종영 선생을 보는듯하다.

토마토에 각종 꽃나무들이 가득하다. 빨간 열매가 매달린 화분에 눈길이 멈춘다. 열매가 예쁘다는 말에 빨강고 조그만 것을 따 건네주신다. 말이 필요 없다. 벌써 입에 넣으며 눈짓으로 권한다. 새콤, 조금 달콤, 부드러움... 이름은 이슬이다. 예쁜 모양과 이름에 써마져도 녹여 먹겠다는 듯 입안에서 씨를 굴리며 마당을 구경한다. 이름 모를 갖가지 꽃과 나무가 가득하다. 당연한 듯 나비와 벌도 많다. 밤새 내린 비로 질퍽해진 흙 마당에 필자가 지나온 구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 애 나는 왜 이런 곳을 방문하면서 구두를 신은 것일까?

**四美樓** \_\_\_\_\_ 김종영 생가는 길을 사이에 두고 본채와 아래채가 어긋나게 마주하고 있다. 마당 한가운데로 도로가 나면서 'ㄷ자형'의 집 한 채가 허물어졌고 본채와 사랑방 역할을 하던 사미루가 똑 떨어졌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솥을대문으로, 어칸 상부에 공루(空樓)를 꾸민 형태다. 솥을대문의 어칸 상부에 공루를 두는 형식은 경남 지방 서원 건축이나 재실 건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형태이다. 그 옛날, 본채로 가는 대문이고 문객(門客)들과 서화 및 풍류를 즐기던 공중누각, 사미루가 이전 그저 대문이다. 문화재 파괴의 현장을 간간히 보지만, 도로를 내기 위해 집이 반쪽으로 갈라진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그저 실소가 흘러나왔다.

길 밖에서 오랜 세월이 묻은 사미루 현판을 보며 한참을 머물렀다. 석촌 윤용구 선생의 글이라 한다. 예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역임했지만, 국권피탈 후 법무, 탁지부, 내무대신 등 관직을 10여 차례 거부하고 일제 남작작위를 거절한 강직한 어른이 써 준 편액, 사미루. 네 가지 아름다움이라? 일각에서는 남조(南朝) 사영운(謝靈運)이 말한 좋은날과 아름다운 경치와 기쁜 마음, 즐거운 일이라고 하고 일각에선 청대(清代)의 문인 정섭(鄭燮)이 이야기한 변하지 않는 네 가지라고 한다. 난, 죽, 바위, 사람을 아름답다고 했다던... 전자건 후자건 네 가지 아름다움을 갖춘다는 것, 바로 달관이지 않은가.

남을 웃기고 울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울어야 하고  
웃어야 하는 것이 예술이다.  
작품은 누구를 위해서  
제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진실한 예술가라면  
서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 할 것이다.  
진실로 남을 위하려면  
먼저 자신에 충실해야하기  
때문이다.



우성 김종영 자화상

**김종영 탄생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_\_\_\_\_ 올해 6월 26일은 김종영 탄생 100주년이다. 이날을 기념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후원하고 창원예총과 김종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김종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이 선생의 생가에서 열렸다.

창원 출신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2004년 즈음이다. 기교나 기술보다 정신과 정서, 사상을 중시하며 평생 예술을 통해 세속적인 출세의 욕망을 멀리하고 고고한 인품과 예술 정신으로 살다 가셨기에 더욱 알려질 기회가 없었다.

깎뿔 깎지 않은 상태를 지향하는 추상 조각의 비전으로 '不刻의 美'를 추구하며 200여 점의 조각 작품과 3000여 점의 드로잉, 그리고 서예 800여 점 등 다양한 방면으로 뛰어난 명작들을 남긴 김종영 선생. 예술가 특유의 정열에 취하지 않고 한평생 조선의 선비처럼 담백하고 고고한 일상을 살았다는 점도 한국미술사에선 특별한 존재로 새겨지며,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종합전은 서울에 있는 김종영 미술관과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각각 열리고 있다. 창원에서는 기념사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미술 체험축제, 학술세미나, 김종영 예술세계 아카이브 순회전, 도립미술관 기념전이 열린다. 또한 창원문화재단과 창원·마산·진해 미술인들은 공동으로 선생의 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지역 미술사를 정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성산아트홀 제1, 4전시실에서 '빛과 맥-창원 작가전'을 개최한다.

창원의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으로 알려지게 된 우성 김종영 선생. 그의 자화상이 떠오른다. 얼굴의 표정이나 머리, 눈썹 등을 생략해버린 자화상은 선생의 예술철학이 집약되어 있는 것만 같다.

| 구분                 | 행사명                            | 장소            | 날짜         |
|--------------------|--------------------------------|---------------|------------|
| 김종영 탄생 100주년 기념전시회 | 빛과 맥- 창원작가전                    | 성산아트홀 1·4관    | 9.02~9.26  |
| 맥을 잇는 꿈나무들의 잔치마당   | 어린이 미술 체험축제                    | 용지문화공원        | 9.13       |
| 학술세미나              | 문화예술 자산의 가치와 전략화 모색            | 경남도립미술관       | 9.17       |
| 불각의 미, 김종영을 품다     | 김종영 예술세계 아카이브 순회전              | 생가, 창원역, 남산 등 | 6.26~10.03 |
| 부대사업               | 시민과 함께 떠나는 김종영 미술여행            | 김종영미술관, 생가    | 5월~10월     |
|                    | 100주년 기념백서 발간 김종영선생 다큐 TV방송 추진 | 실무위원회         | 5월~12월     |
| 종합전                | 김종영 탄생 100주년 기념전               | 경남도립미술관       | 9.10~12.9  |



“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작품이 어떠한 무엇으로나 기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아로새긴 등신불을 만나다



어디있나요?

경남 사천시 곤명면 다솔사길 417

Writer 김규남 Photographer 구본수



## 등신불 (1961년 '사상계'에 발표)

'나'는 일제 말 학병으로 끌려가 남경에 주둔해 있다가 대학 선배의 도움으로 탈출해 정원사란 절에 몸을 의탁한다. 그곳에서 금불각에 안치된 등신불을 보게 되는데 그 불상 같지도 않은, 인간적인 비원을 담고 있는 모습에서 충격과 전율을 느끼게 된다. 그 불상은 옛날 소신공양(燒身供養)으로 성불한 '만적'이라는 스님의 타다 굳어진 몸에 금을 씌운 것이다. '나'는 원혜대사를 통해 신비로운 성불의 역사를 듣게 되고 그 불상에 인간적인 고뇌의 슬픔이 서려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 김동리 단편소설 <등신불>의 탄생배경이 된 다솔사

경남 사천시 곤양면의 봉명산 자락에 위치한 '다솔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신 적멸보궁이 있는 고찰로, 만해 한용운 선생과 김동리 선생의 흔적이 서려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뜨거운 여름의 더위에 지쳤다면, 다솔사에서 영감을 얻어 쓰인 김동리 선생의 <등신불> 책 한 권을 옆에 끼고 산책하듯 가볍게 다솔사에 들러 보는 것은 어떨까?

다솔사, 소설 등신불의 배경이 되다 \_\_\_\_\_ 그 중에서 단편소설 <등신불>은 다솔사에 얽힌 전설을 기초로 해서 쓰인 작품으로 유명하다. 당시 다솔사에는 스님들이 스스로 몸을 사른 장소, 즉 소신대(燒身臺)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김동리는 이 소신대에서 소신공양을 한 승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은 바 있으며, 훗날 이를 소설로 승화시켰다. 다솔사에 가면 <등신불>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등신불은 사람과 같은 크기의 불상을 의미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등신불은 '얇은 채로 몸을 불살라 소신공양을 한 스님의 타다 굳어진 몸에 금을 씌워 불상으로 만든 것'을 뜻한다. 이는 다솔사에서 내려오는 전설로, 실제로 등신불을 만날 수는 없지만 절 곳곳에

서 세속적 번뇌를 잊고 종교적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다솔사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대양루'는 절을 찾는 사람이 가장 먼저 기쁘게 맞이한다. 만해 한용운과 김동리가 거쳐하던 안심로에서는 일제시대 선구자들의 고민과 번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사리탑은 종교적 신성함과 영험함을 절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적멸보궁 내부에 있는 와불(누워있는 불상) 너머로 사리탑을 볼 수 있는 창이 나 있어 사리탑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여기에 다솔사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향긋하고 푸르른 녹차밭의 풍경까지, 절을 둘러보며 저절로 휴식이 되는 이만한 안식처가 또 있을까.



# 지역 메세나 발전이 문화융성을 이끈다

Writer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김민지

프랑스는 예술정책과 메세나의 가장 모범적 사례로 꼽히는 나라다. 지역별로 수많은 페스티벌이 있지만 아비뇽 연극 페스티벌,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 엑상프로방스 국제오페라축제, 칸느 / 낭트 영화제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중복성이 거의 없는 다양한 축제들은 세계적 수준으로 꽃을 피워 수십 만 명을 모객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니콜라푸생 (Nicolas Poussin)의 작품 '이집트로의 피신'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 많은 기업과 후원자들이 1,700만 유로(약 230억원)를 모았던 사례 등 예술 강국으로서 감탄을 불러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문화 예산을 감축하는 가운데에서도 적극적 지지를 지속하고 있는 정부, 메세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6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전 지역에 걸쳐 예술후원협회가 2000여 개 이상에 이를 만큼 사회 전반적 인식과 지지 토대의 탄탄함, 지역 분산화 정책 등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예술 현장과 메세나 활동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제가 많다. 많은 민간 예술단체들은 매년 존폐의 사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예술 활동 중심 자원 조성만으로는 자생력 확보와 존속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공공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러한 예술 단체들은 프로젝트성 단기 지원, 소액 다건 지원을 받으며 경영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고, 정책 지원 방식과 내용이 바뀔 때마다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했다.

예술단체들의 취약한 경영 구조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은 민간 단체들의 경영 전망을 점점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문화융성을 기조로 문화재정 2% 확보라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문화 향유는 확대되었을지언정 민간 예술단체의 운영 상황까지는 단비가 닿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순수 예술 지원의 중추 역할을 했던 문예진흥기금도 추가 자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기금 고갈이 가속화되면서 수 년 내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다. 개인 기부가 7조원을 넘어섰고 법인 기부의 1.7배에 이르고 있으나,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 기부는 아직 전체 기부금 중 0.2% 내외 수준으로, 사회적 인식과 기부 성숙도가 향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현실적 대안은 대기업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복지·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 기부를 각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마련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업 니즈와 자원에 맞추어 문화예술 분야를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방법론 제시, 투명성과 우수성이 검증된 예술 단체·예술가와의 파트너십 매칭, 내부 설득을 위한 효과성 입증 지원,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기업 CEO, 임원과 실무 담당자들의 문화 접점을 확대와 소양 증진 등 문화예술 후원의 주요 장애 요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각 지역별 매개 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기업의 후원으로 각 지역 청소년들이 예술단체, 예술가들과 함께 지역 문화를 탐방하며 공연, 애니메이션, 사진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전개했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며 수도권 문화 편중 현상의 문제점과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어려운 상황,

지역 예술성과 인재 발굴 및 양성의 중요성 등 지역 메세나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피부로 깊이 느끼게 되었다. 유일한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후원 매개 기관으로서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 기부금 확대라는 양적 확장을 도모하면서도 지역 기업에 맞는 예술 지원과 문화 경영의 사례들을 개발하고 예술의 힘을 다양한 기업과 임직원들이 체험하게 하는 경남메세나협회의 활동들은 지역 메세나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지역 메세나 활성화 기관과 활동들이 경남메세나협회 이후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메세나 확산과 예술 진흥은 문화융성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다. 이를 위해 지역 메세나의 다양한 모범 사례들이 개발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마중물 지원, 전국 각 지역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과 지역 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지역 주민들의 지지 확대가 요구된다.

**명랑만보** : 기업의 지원을 받아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에서 시행하는 '명랑만보' 프로그램은 소외 청소년들의 표현력과 자신감 향상을 목표로, 참여 청소년에게 사진·카툰·스토리텔링 등의 전문적인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다.





#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2014년 1월 시작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달에 하루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이용가능 시설은 [www.culture.go.kr/wday](http://www.culture.go.kr/wday) 에서 확인하세요.

## 한 달에 한 번, 부담 없이 문화와 만나는 날!

'문화가 있는 날'은 7월 현재 경남에서 87개의 문화시설들이 동참하여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들로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남도립미술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통영옷칠미술관 등은 당일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김해박물관, 진주 박물관 등은 직장인들을 위해 연장 전시를 하고 있다. 김해도서관은 수요일데이, 무비데이 등 '데이시리즈'를 기획하여 지역민들에게 장르를 넘나드는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있고, 경남문화예술회관, 성산아트홀 등 주요공연장은 클래식연주회는 물론 인디밴드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화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에서는 퇴근시간대에 관람권을 큰 폭으로 할인해주고 있다. 작년 7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는 창원문화재단 김재성 차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객 점유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관객들 호응이 뜨겁다"며 참여현황을 전했다.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예술단체들도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중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보존회가 눈에 띄는 행보를 펼치고 있다. 고성오광대보존회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전수교육관에서 상설공연 '판'을 열고 있는데, 각 공연마다 다양한 장르의 전통공연을 선보여 고성군민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배화

정 간사는 "이제는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이면 관객들이 알아서 찾아와 공연을 즐기고 있다"며 "고성에서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다"고 전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들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공연과 전시,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공익적 캠페인으로서, 도내 많은 기관들과 단체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인지도가 낮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예로 들면 접근성이 용이한 모바일용 어플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연령별·취향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자료가 대부분인 페이스북 등의 SNS를 지역 단위로도 운영한다면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양방향 소통도 가능해질 것이다.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기업과 공동으로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문화퇴근일'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더 나아가 기업 내에서 문화공연이나 전시를 열고 예술교육이나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더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단기간의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국민들이 문화를 가까이하고 즐기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가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나가기 할 것이다.

## 경남메세나와 함께 하는 '우리 회사, 문화가 있는 날' 제1탄 STX 조선해양

Writer STX조선해양 홍보팀 이현경 대리

기업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기업에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에 부응하여 한 달에 한 번 문화예술을 통해 직장인들이 여유와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를 찾아가 공연과 전시를 제공해주는 '우리 회사, 문화가 있는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캠페인을 함께한 STX R&D센터 현장으로 가보자.

지난 7월 29일, 창원 STX R&D센터에서 경남메세나협회의 주관으로 현악 앙상블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낮잠보다 시원한 COOLCOOL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을 맞아 경남메세나협회에서 열정과 끈기로 어려운 조선업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STX조선해양 직원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통한 격려를 전하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연주회가 공지된 이후,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 하루 지나가는 날짜를 세어왔던 임직원들은 이제 곧 시작될 음악회를 기다리며 즐거움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어 연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2시 30분

에서 1시, 약 30분간 열린 연주회에서는 바이올린, 첼로 등으로 이루어진 창원 스트링 앙상블과 바순, 플루트의 협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헨델의 '시바 여왕의 도차', 비발디 사계 중 '겨울',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 마이클 맥린의 '탱고' 등 약 8곡을 선보였습니다. STX R&D센터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이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1층 로비에 잠시 머무르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열심히 찍는 직원들도 있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닥에 편하게 앉아 감상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창원 스트링 앙상블 우정일 단장의 재미있는 곡 소개로 인해 이따금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편

안한 감상을 위해 누구나 어디선가 들었음직한 친숙한 노래를 많이 선포해 주어 모두가 낯설지 않게 음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이 성큼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앙코르까지 모두 마치고 창원 스트링 앙상블이 악기를 정리할 때까지도 몇몇 임직원들은 여운이 가시지 않는 듯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미소 짓는 임직원들과 힘겹게 일하는 직원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한 것 같아 기쁘다는 창원 스트링 앙상블 단원들을 보며, 차가운 기업과 따뜻한 예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앙상블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우리 회사, 문화가 있는 날' 신청방법

경남메세나협회 홈페이지 내 <자료실 ▶ 찾아가는 공연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하여 메일 [gnmecenat@gnmecenat.or.kr](mailto:gnmecenat@gnmecenat.or.kr) 로 보내주시십시오. 공연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  
Accompany

40  
Foreign Performances

26  
Interview

44  
Mecenat News

34  
Enjoy Culture

50  
Mecenat News Brief

### 아름다운 사람

그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풀잎 끝에 걸린 투명한 이슬  
햇살 스며든 검은 흙  
그 향기

그대를 두고 빔어진 말입니다  
소낙비 지난 뒤 씻긴 얼굴과 하얀 목덜미  
마주한 검은 눈동자  
그 낮익음

그대를 두고 부르던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눈물 넘어 미소 띤 깊은 마음  
그 아득함 간절함 천 번의 설레임

당신은  
있는 그대로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 김유철 한국작가회의 시인



Accompany - 연암테크 (마티네 콘서트)



01  
—  
아름다운  
동행

# 연암테크와 창원음악협회의 '공장이 무대다'

Writer 안은화 Photographer 이승훈

공장에 간 클래식  
근로자를 위한 현악앙상블 마티네 콘서트

귀를 울리는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소음으로 익숙했던 공장에 화사한 현악 앙상블 연주가 봉긋이 피어난다. 산업현장의 최일선인 생산 공장과 클래식 공연의 만남은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고, 색다른 감동이다. 창원음악협회와 주식회사 연암테크가 메세나 결연을 맺고 함께 마련한 근로자를 위한 마티네 콘서트 <공장이 무대다>가 6월 중순 창원시 웅남동에 위치한 연암테크 복지동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연미복을 차려입은 관중은 아무도 없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작업복 차림 그대로 공연장에 들어선 직원들의 어색하던 표정들이 점차 편안해지며 이내 음악이

'공장이 무대다'라는 말이 정말로 몽클하다는 창원음악협회 노주식 회장은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개최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일터가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문화예술에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공연을 본 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가 오늘 하루 보람되고 즐거운 날이었다고 느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밝은 얼굴로 공연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공장을 찾은 클래식 콘서트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엄주성 대표이사부터 시작하여 앙코르가 터져 나오고 박수가 이어졌다. 직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매우 높아 9월에 예정된 두 번째 <마티네 콘서트> 브라스 앙상블에 거는 기대와 관심도 무척 커졌다. 공장에 간 클래식은 지친 업무 중에 맞보는 달콤한 휴식이자, 새로운 활력이 돼 주었다. 작지만 더 큰 미래가치가 있는 기업으로서 풍요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암테크가 앞으로 세계 속에 더 높이 비상하고, 더불어 지역 문화계에도 더 큰 날개가 되어 주기를 기대해본다.

공연을 보고 즐긴 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가  
오늘 하루 보람되고 즐거운 날이었다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일터가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 아닌 기쁘고 행복한 곳이 되길 바란다.

주는 위안과 행복에 빠진다. 설령 제목은 몰라도 막상 들어보면 '아! 내가 아는 곡이구나.' 싶은 익숙한 곡들과 바순, 플루트의 연주와 바리톤의 노래 등 풍성한 구성으로 공연은 내내 지루하지 않고 유쾌하다.

연암테크는 롤러기어캠을 자체적으로 독자 개발하고 뛰어난 가공기술과 연구로 항공기 부품의 최고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세계 최대의 여객기 제조 회사인 보잉사도 연암테크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니 품질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업체인 셈이다. 또한 선박용 대형 임펠라, 모터기, 위성발사체 부품, 방공산업부품, 공작기계류 부품 분야에도 명실상부 전문성과 우수성을 갖춘 회사다.

평소에도 직원들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연암테크 엄주성 대표이사는 "기업과 문화가 상부상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마땅히 기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좋은 제안이 있어 미약하나마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가 일만 시키는 회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일의 가치와 보람을 찾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하여 역량이 쌓이면, 사회공헌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계획을 밝혔다.



초록빛 파릇한 봄기운이 넘실대는  
5월의 어느 주말 저녁,  
창원 내서읍의 한 카페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다.

선선한 저녁 공기 속으로 트럼펫과 트롬본, 호른-관악 3형제의 경쾌한 소리가 리듬 맞춰 행진을 시작한다. 금속 악기와 사람이 나누는 애뜻한 입맞춤으로 탄생한 음들이 한데 어울려서 춤을 추니, 도란도란 둘러앉은 관객들은 발을 까딱거리고 손뼉을 마주 치고 결국은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만다. 창원 중리에 위치한 카페 에스프레소9 예구 마당에서는 봄부터 늦여름까지 매월 소박하고 정겨운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5월부터 7월, 8월, 9월까지 내서문화포럼이 마련하는 작은 음악회는 가야금과 바이올린의 만남, 클래식 기타의 밤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작은 심이 되는 이 음악회를 이끌고 있는 이는 바로 내서문화포럼의 이동근 회장이다. 내서문화포럼은 지역 예술인·교사 등 내서읍에 사는 지역민이 주체가 돼 2009년부터 활발하게 문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다. 현재 내서문화포럼은 마산국제 춤 축제 등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열고 있는데, 내서문화포럼의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지역예술 활동 봉사에 의욕이 넘치는 이동근 회장이 있다. 현재 경남발레단의 단장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무용분야 지역교육위원이기도 한 이동근 회장은 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사실 작은 음악회의 후원자인 K2 창원 중리지점의 강영희 사장과의 인연도 무용 때문이었다. 이동근 회장이 경남청소년발레단 단장이던 시절, 강영희 사장의 두 자녀가 그에게서 발레를 배웠다. 강영희 사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심 없이 봉사하고 소신껏 지역의 문화 활동에 헌신하는 이동근 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 거창한 결연식도 없었고 그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인연이 계속돼 왔다. 또 한 가지, 강영희 사장이 이 같은 후원을 계속하는 이유는 일종의 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보답하는 의미 있는 환원이라는 것이다. 내서문화포럼 이동근 회장은 여전히 욕심도 많고 의욕도 많다. 아이들을 위한 예술 교육분야나 섬 지역 등의 문화소외지역을 찾는 일을 하고 싶다. 어디선가! 누군가! 문화예술을 찾는 지역민들이 있다면 언제나 발 벗고 나설 테세다. 앞으로도 내서문화포럼이 어떤 크고 작은 즐거운 문화 활동들을 벌일지 사뭇 기대가 된다.



02  
—  
아름다운  
동행

## K2와 내서문화포럼

Writer 안은화 Photographer 경남메세나

이웃들과 함께 하는 소박한 기쁨,  
문화예술의 나눔



03  
—  
아름다운  
동행

## 경남은행 & 한마음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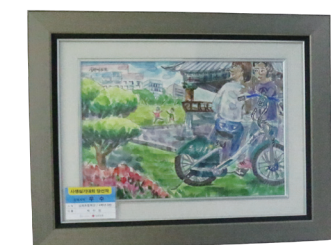
Writer 경남메세나 Photographer 이승훈

### 아픈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희망 프로젝트

경남은행은 매년 도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캔버스에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기발하고 재미있고 때로는 감동적인 모습으로 담겨왔다. 경남은행은 수상 작품들을 은행 내에 전시하여 직원들과 고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이 해맑은 그림들이 아픈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경남은행은 파트너가 되어줄 지역 병원을 찾던 중, 평소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을 벌이며 모범이 되어온 창원 한마음병원과 손잡게 되었다. 한마음병원은 전국 종합병원 중 소아청소년과 방문환자가 가장 많은 병원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을 지역 아동복지를 위해 사용해왔다. 병원에서도 평소 아픈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기에 경남은행의 제안은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었다.

경남은행과 한마음병원은 2013년 여름, 소아과병동 5, 6층에서 그해 사생실기대회 수상작품들로 첫 전시회를 열었다. 바깥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병동에 있지만, 그림을 통해 마음속 활기를 채울 수 있기를 바라며 진행된 이 전시는 환아들과 보호자들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래서 올해 제2회 전시를 기획하여, 기존의 5, 6층 병동에 이어 7, 8층 병동을 새로운 작품들로 꾸몄다.

한마음병원 배규민 팀장은 전시 이후 병원의 다소 무거웠던 분위기가 아이들의 상상이 담긴 재밌고 예쁜 그림들로 인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병원 직원들은 물론이고 환아와 보호자들 역시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씩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사업팀 송대순씨는 “사생대회 후 그 많던 그림들이 다 사라지는 것보다 이렇게 힐링이 필요한 공간에 전시되니,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전했고, 보호자 박지환씨는 “입원한 자녀와 함께 아이들의 그림을 보며 얼른 다 나아서 날씨가 선선해지면 아이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든다.”고 전했다. 그림을 통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고, 많은 이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경남은행과 한마음병원. 이들이 만나 일으킨 따스한 시너지가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





# 무학 굿데이 뮤지엄

Writer 안은화 Photogapher 구분수

술이 안내하는  
특별한 세계여행!  
세계주류박물관



04  
—  
아름다운  
동행



한 병의 술에는 인류의 문화와 역사가 녹아 있다. 인류의 '희, 노, 애, 락'이 숙성 돼 있다. 술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인류역사여행이자, 특별한 세계여행이 펼쳐진다.

당신이 애주가라면 발그레한 조명아래 진열된 세계 3000여종 술들의 자태에 먼저 반해 버릴지 모른다. 술을 결코 입에 대지 않는 이라도 좋다. 각 양 각 색 술들이 들려주는 흥미 솟는 이야기 독에 이내 빠져들고 말 테니. 종합주류회사인 (주)무학이 기업의 태동지인 창원1공장에 건립한 국내 최대 세계 주류 박물관 <굿데이 뮤지엄>에서는 시대를 바꾸고 종류를 바꾸어 가며 인류가 빚어온 무수한 술들이 각기 특유의 맛과 멋, 문화와 역사를 내보이고 있다. 중국의 8대 명주와 일본의 다양한 사케, 마을마다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독일의 자부심 맥주, 루이 13세가 사랑한 술 코냑과 등급별 프랑스 와인, 카리브 해 연안에서 발달한 해적의 술-럼, 정열과 파격의 술로 불리는 멕시코의 데킬라 등 각 대륙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주종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살모사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는 북한의 불로주와 헤밍웨이와 고흐 등 19세기 수많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은 악마의 술 압생트, 그리고 성룡이 '취권2'에서 비틀대며 마셔대던 공주자주처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술들이 가득하다.

'세계 술 테마관' 에서 이토록 흥미로운 세계여행을 마쳤다면, 이번에는 마산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 술과 장으로 유명한 항구도시 마산. 주향(술의 고향) 마산의 역사적 의미와 그 마산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향토기업 무학의 발자취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

이제는 사라진, 그 시절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시대별 소주들과의 재회는 더 정겹고 반갑다. 술의 기원과 역사, 세계 각국의 술 문화와 대표 주종, 그리고 지역의 술 이야기와 문화까지 한 눈에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 <굿데이 뮤지엄>은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 한편 <굿데이 뮤지엄>에서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볼거리는 '굿데이 갤러리'에 마련된 각종 미술품 전시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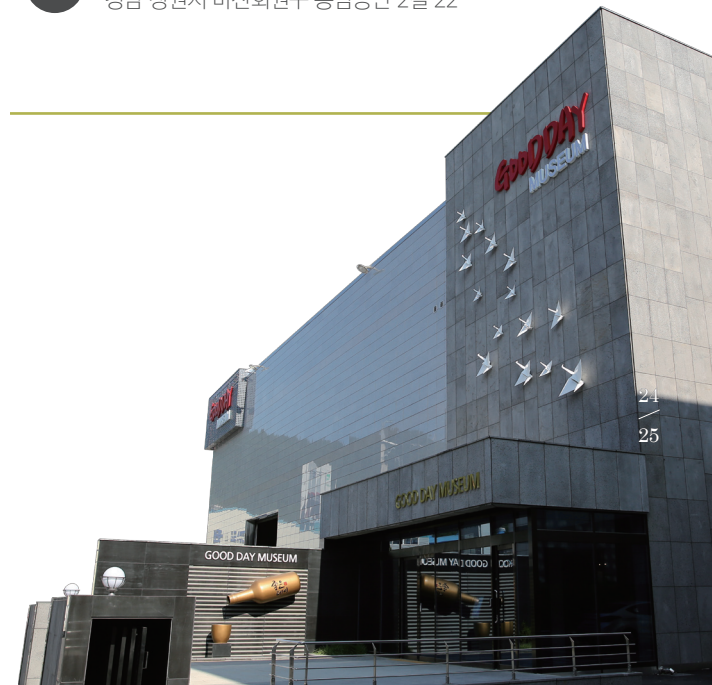
굿데이 갤러리는 창원의 각종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쉼터로, 오는 9월 30일까지는 박물관 개관을 기념하며 (주)한국야나세 우영준 회장의 소장품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특히 우영준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미술품은 문화예술과 기업의 만남인 메세나 정신과 애항심이 담긴 작품들로 이림, 김창렬, 오세영, 안재덕, 황유엽 등 국내외 화단에 이름이 알려진 현역작가와 작고작가 14명의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미감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어디있나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2길 22



는 '무학관' 에는 70년대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재현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소주 껍질을 실어 옮기던 소달구지와 작은 구멍가게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니 직접 시대극의 배우가 돼 보고 싶고, 어르신들이라면 앞 다퉈 옛이야기를 꺼내 추억을 즐기게 만든다.





Sponsored Company  
**HWASUNG**

## 7년 동안 마주잡은 두 손,

대한민국 예술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으로

화성G&I(주) 김원철 대표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 김호준 지휘자



CHANGWON  
YOUTH  
SYMPHONY  
ORCHESTRA



## INTERVIEW

국내 승강기 부품의 대표주자인 화성G&I 김원철 대표와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 김호준 지휘자가 마주 앉았다. 각 단체의 대표라는 직함을 잠시 벗어놓고 '문화를 공감하고 나누는 두 남자'로서의 대화가 이어졌다. 결연이 이어졌던 7년이라는 시간동안 화성G&I는 한눈팔지 않고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의 뒤를 든든히 받쳐 주었고, 교향악단 역시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실력을 키워 나갔다. 여기,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예술을 사랑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Writer 김규남 Photographer 이승훈

**#01** 마산에 위치한 화성G&I 대표이사실. 좋은 그림과 섬세하게 고른 듯한 인테리어 소품들 덕분에 마치 화랑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이곳에서 화성G&I 김원철 대표와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 김호준 지휘자가 인사를 나눴다.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하고 익숙하게 주고받는 대화들 속에서, 두 단체가 이어온 결연의 끈이 얼마나 돈독한지 느낄 수 있었다.

김원철 대표 안녕하세요. 저야말로 덕분에 좋은 음악을 들을 기회도 많아졌고 음악이나 예술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교향악단의 활동을 지켜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김호준 지휘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많은 회사에 방문해봤지만 이렇게 정성 들여 세심하게 잘 꾸며놓은 회사는 정말 찾기 드물어요.

**#02** 7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결연. 두 단체는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았을까. 화려하게 빛나진 않지만 숨은 재능을 지닌 청소년교향악단과, 그 진가를 알아본 화성G&I의 인연은 메세나 결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원철 대표 임직원들의 일에 대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사무실을 좀 부드럽게 꾸미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예술작품이나 다양한 디자인 소품을 접하다 보면 생각이 창조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는 디자인 시대잖아요. 제품과 기술력이 비슷하다 보니 나머지 2%를 결정짓는 '디자인'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 2%의 창조적 생각을 위한 밑거름이 바로 '문화예술'이 아닌가 싶어요.

김호준 지휘자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서 화성 G&I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나 봅니다. 생각해 보니 화성G&I와 인연을 맺는 것이 지난 2009년부터였으니, 벌써 7년째네요. 연말이 되면 화성 임직원들과 함께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 좋은 공연도 들려주고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했

김원철 대표 청소년교향악단과 연을 맺는 것은 메세나 결연을 맺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아내가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도 많고 봉사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결연 전부터 우리 부부가 개인적으로 창원청소년교향악단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우리 애들도 바이올린도 배우고 있었고 저도 평소에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면도 있었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인연을 맺어 오다가 메세나의 도움으로 비로소 제대로 된 후원을 해 줄 수 있게 됐죠.

김호준 지휘자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서 화성 G&I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나 봅니다. 생각해 보니 화성G&I와 인연을 맺는 것이 지난 2009년부터였으니, 벌써 7년째네요. 연말이 되면 화성 임직원들과 함께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 좋은 공연도 들려주고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했



**#03** 자고로 사랑은 받은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큰 법이다. 화성G&I 김원철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창원청소년교향악단에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를 해 주면서 ‘나누는 기쁨’과 ‘좋은 음악을 함께 듣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김호준 지휘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 교향악단은 대외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힘든 단체다 보니 운영 면에 있어서 더 힘들었는데, 화성G&I의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단원들도 음악에 더 열정을 느끼게 되고 유명한 음악인을 초청해 협연을 하면서 음악적 수준과 실력이 더욱 향상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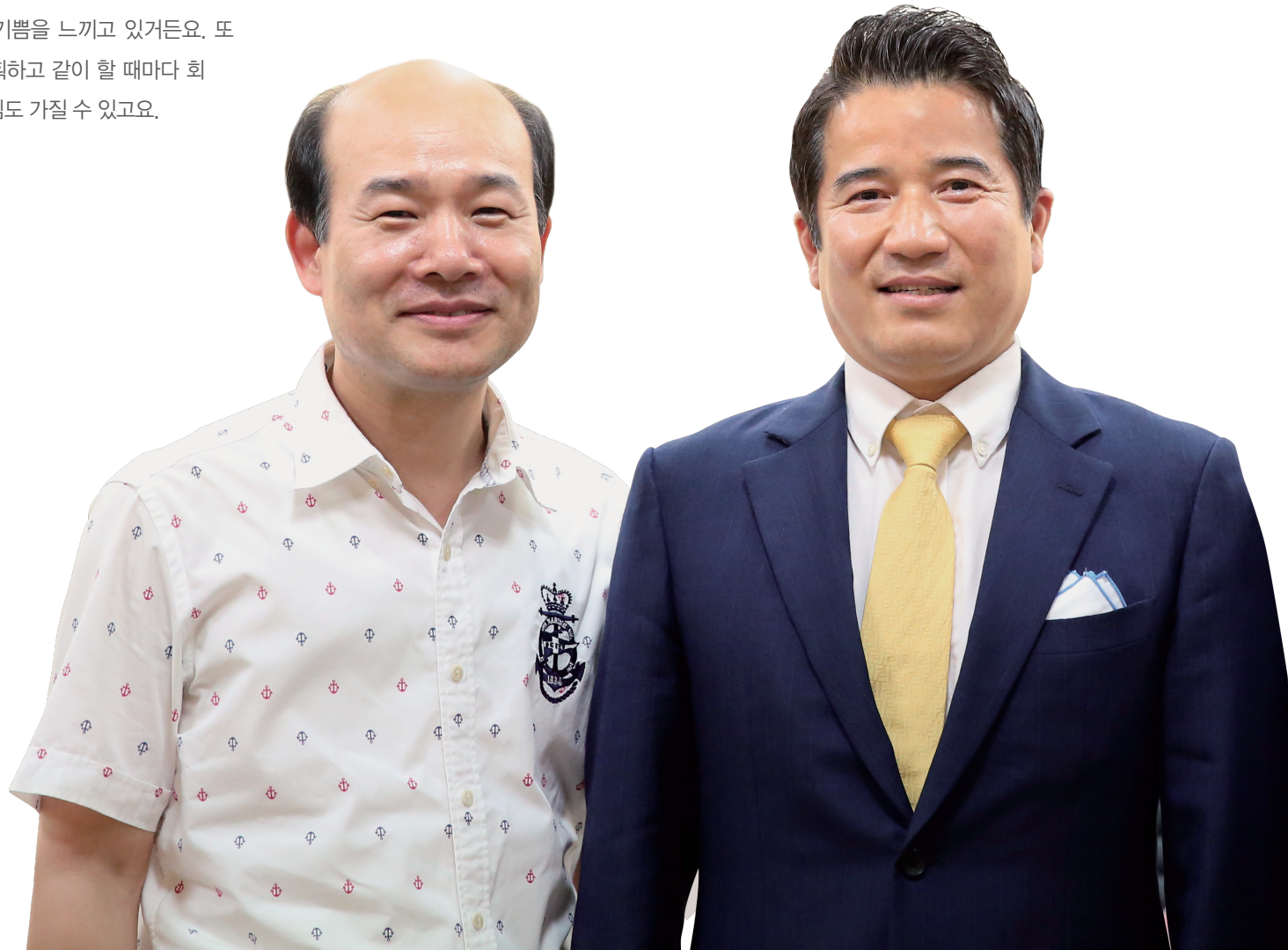
**김원철 대표**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세나 결연을 통해 어떤 예술단체를 지원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혜택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혜택이 있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공연도 보면서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있거든요. 또 좋은 행사를 기획하고 같이 할 때마다 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요.

**김호준 지휘자** 메세나 이전부터 함께 했으니 이 인연이 벌써 10년 동안 이어져 왔네요.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형식적으로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공연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참석해서 우리 단원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잖아요. 특히 지난해 공연 때는 인천공항에서 자녀들을 외국에 비행기 태워 보내고 바로 먼 길을 내려와 행사에 참석해 주셨어요. 그만큼 진정성이 있어서 가능한 일 아닐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김원철 대표** ‘청소년’교향악단이기 때문에 더 정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일만 없으면 되도록 공연장에 가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자주는 못 가보지만 공연에 갈 때마다 좋은 연주를 들려주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때로는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해요.

**김호준 지휘자** 아이들이 틀리거나 실수할 까봐 조마조마하는 것은 지휘자인 제가 느껴야 할 감정인 것 같은데요?(웃음) 그만큼 대표님께서 오케스트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기 때문이겠지요.

**김원철 대표** 그런가요? 저는 그저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 음악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좋아서 공연장에 갑니다. 유명한 연주가의 공연을 봤을 때에는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거든요.



●●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형식적으로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진정성이 있으니  
가능한 일 아닐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

**김호준 지휘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연주를 화성G&I 식구들을 비롯해 많은 경남 도민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연주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동안 정말 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 했던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김 대표님, 우리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욱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원철 대표** 아닙니다. 지금도 정말 잘 해 주고 계셔서 저도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창원과 경남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음악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크로마하프 음율에 날개를 달아주는 든든한 후원

상화도장개발 이년호 회장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이미애 단장

Writer 김규남 Photographer 이승훈

상화도장개발 이년호 회장이

(사)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와 결연을 맺은 것도

벌써 5년째다. 그동안 상화도장개발과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가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는

크로마하프 음율 만큼 따뜻한 정이 흐른다.

크로마하프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악기로 36줄과 21개 코드로 구성된 현악기다. 크로마하프는 악기를 안고 연주하는 모습이 마치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과 같아 '천사의 악기'로 불리기도 한다.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은 듯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악기보다 더 들는 이와 보는 이의 가슴을 크게 울린다. 이런 이유로 크로마하프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용도 외에도 음악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아픔을 보듬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천사의 악기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단체가 있다. 바로 지난 21년 동안 크로마하프를 연주하고 음악치료 활동을 해 온 (사)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가 그 것.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연주활동을 하고, 상처받은 여성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이 그렇듯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회원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음악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런 크로마하프의 발전에 날개를 달아준 기업이 있으니, 바로 봉사정신으로 똘똘 뭉친 (유)상화도장개발이 주인공이다

## 메세나 후원으로 기업의 '격'을 높이다

상화도장개발 이년호 회장이 경남에 터를 잡고 기업을 일군지 35년이 지났다. 이 회장은 "경남은 내게 있어서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경남의 경제와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을 때도 사회의 더 어려운

부분에 손을 내미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 회장에게 봉사는 '습관'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양로원, 재활센터 등에서 직접 몸으로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뿐 아니라 대학교나 열악한 환경의 자치단체를 위한 발전기금을 쾌척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이미애 단장과 인연도 이런 다양한 활동들 중 하나를 통해 이뤄졌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두 단체의 대표가 만나게 됐던 것. 함께 청소년의 범죄예방과 멘토링 활동을 하던 사이에서, 이제는 음악으로 사회봉사를 하는 예술단체의 대표와 메세나 결연으로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기업의 대표로 연을 이어나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지켜보니 이 단장이 크로마하프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고 봉사활동도 정말 성심껏 하더라고요. 그 변함없는 활동을 지켜보면서 본격적인 후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을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기업의 이름으로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나눔에 대해 지지해주는 직원들의 도움이 컸다. "우리 상화도장개발이 단체에 기부를 하고 예술단체를 스폰서하는 활동들을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고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해 주는 직원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 회장이 끌어주고 직원들이 뒤에서 밀어 주니 기업의 경쟁력도 더욱 올라갈 수 있었다. 또 대외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만큼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직무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고민도 많이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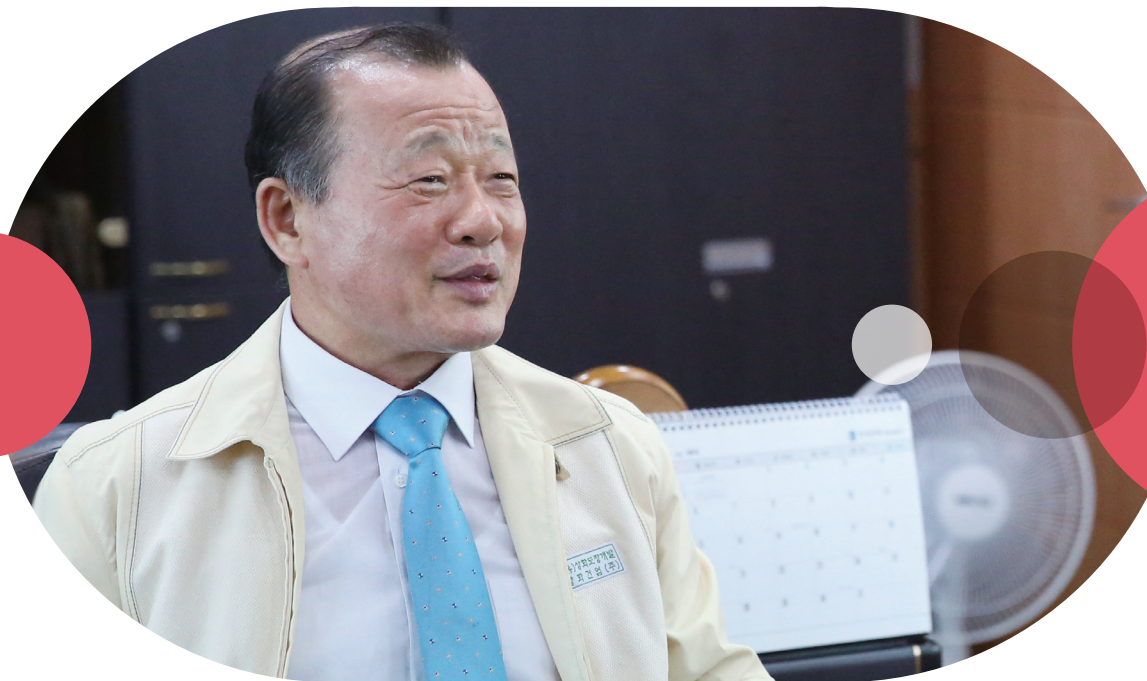
보니 직원들의 애사심도 더욱 올라갈 수 있었다. 더불어 메세나 후원을 한 덕분에 회사의 품격도 더욱 올라간 것 같다고.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지만 예술단체 후원을 하는 것이 회사의 품격을 더욱 높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 보람 있는 돈이에요. 매번 생각하지만 돈을 써도 참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보듬고 쓰다듬고 격려해 주는 악기, 크로마하프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는 메세나 후원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집장촌 피해여성이나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게 크로마하프를 통해 음악치료해 왔다. 그리고 그들이 악기를 다루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무대를 준비해 연주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 단장은 "상처 입은 여성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길 두려워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악치료를 통해 같이 연주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이렇게 매년 공연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상화도장개발에서 든든하게 지원을 해 준 덕분이에요."라고 전했다.

바람이 뜨겁다. 아직 여름이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가을이 오면,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의 스물한 번 째 연주가 펼쳐진다. 오는 11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산아트홀 소극장에 가면 엄마가 아이를 보듬듯 따뜻하고 보드라운 크로마하프 선율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처 입었으나 음악으로 당당히 상처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천사의 음율'도 만날 수 있다.







아담한 모습의 해금을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고  
정성스레 활대를 움직인다.  
섬세한 현의 울림이  
공간에 퍼진다.  
악기도, 소리도  
무척이나 아름답다.

Writer 안은화

## 현의 울림이 주는 감동, 해금연주자 정소례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궁중음악과 민속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연주되고 있는 해금은 깡깡이, 앵금 등의 이름으로도 불렸다. 단아한 움직임으로 풍부한 감성을 쏟아내는 해금은 여느 악기들과도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팔방미인이다. 이 해금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스물일곱의 해금연주자 정소례를 만났다. 부산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있으며, 창원 사립동에서 해금 수업도 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친지들 중에 음악을 하는 이들이 많아 악기를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어린 소녀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바로 해금이였다. “해금은 사람을 참 많이 닮은 악기인 것 같아요. 기쁨도 슬픔도 잘 담아내요. 절절한 슬픔도, 기쁜 감정도 충분히 표현하죠.”

해금연주곡에는 정악, 민속악, 독주곡, 퓨전음악 등 많은 곡들이 있다고 한다. 대중적인 공연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퓨전음악을 많이 연주하고, 재즈음악과의 어울림도 좋아 재즈 팀과의 협연도 즐긴다. 이처럼 늘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새롭게 도전하며 나날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전통국악에 대한 애정만큼은 마음속에 언제나 크게 자리하고 있다. 해금산조나 정악, 민속악도 정말 좋다고 그녀는 힘주어 말한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오래되고 식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정소례에게겐 꼭 와 닿는 말이고, 항상 새롭기만 하다. 최근에는 해금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뿌듯함도 느끼지만 남다른 사명감이 솟기도 한다. 우리 악기를 좋아하고,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북돋아 주고 싶다. 그런 열의로 제자들과 함께 하는 해금연주회를 열기도 했고, 시골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해금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다. 또한 매주 서울을 오가며 종묘제례악 보존회 이수교육 과정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해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다. 좋아해서 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좋아하며 정직하게 하고 싶은 것이 해금연주자 정소례의 소박한 바람이다.”

# INTERVIEW YOUNG ARTIST



다시, 가슴이 똘똘.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음악을 들으면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의 손과 발에서 탄생하는 드럼 연주가 그랬다. 심장 박동에 맞춰, 아니 심장을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깊은 울림의 드럼연주는 지켜보는 사람 모두를 숨죽이게 했다. 드럼과 타악기 분야에서 차세대 유망주로 손꼽히는 드러머 강병곤은 아직 서른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이다. 하지만 이력은 다양하다. 경남대학교 음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창원시립교향악단, 경남관악단 등과 협연을 했으며 현재 CWNU원드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타악기를 더 잘 연주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재즈피아노도 전공하고 있으며 하루 6~10시간의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실력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 사실 드러머 강병곤을 세상에 알린 것은 인터넷의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한 편의 영상이었다. 어느 날, 유아용 드럼과 피아노를 같이 연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이를 바로 실행에 옮겼다. 즉석에서 탄생한 드럼과 피아노의 앙상블은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고 덕분에 한 케이블TV의 음악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됐다. 지금은 이렇게 음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처음

부터 음악을 꿈꿨던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을 빼준다가에 합주부에 들어가 심벌즈를 치게 됐고, ‘박력 있고 거친 매력’에 빠져 음악교육과에 진학하게 됐다. 군악대에서 본격적으로 드럼을 치기 시작하면서 ‘무음에서 만들어지는 예술적 매력’에 빠져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시작이야 어떻든 지금은 차세대 유망주로 손꼽히고 있으니, 너무 이른 나이에 전성기를 맞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우문현답. “저에게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전성기에 대비하기 위해 음악연습은 물론 음악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생각이예요.” 꾸준한 연습과 연주활동을 하며 음악인으로, 연구와 학습을 하며 학생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에게 이곳은 너무 작은 우물 안이 아닐까 걱정이 됐다. “아직 창원이나 경남지역이 음악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커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앞으로 경남지역 음악발전에 도움이 되는 음악인이 되고 싶어요.”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드럼 스틱 두 개로 음악에 리듬을 더해 줄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심장을 울리는 리듬, 드러머 강병곤

Writer 김규남 Photographer 이승훈

얼핏 보기에도 열정과 젊음이 가득해 보이는 한 남자가 있다. 음정없는 곳에서 리듬만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만들어 내는 드러머 강병곤과 연습실에서 마주했다.





꽃과 자연물을 엮어 작품을 만드는 화훼장식

Writer 김규남 Photographer 구본수

# 한 송이 꽃, — 예술이 되다



꽃이 피었다. 물과 토양과 햇빛과 양분으로 자란 꽃이 ‘화훼장식’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 번 생명을 얻는다. 꽃은 설치미술이 되고 조형예술이 된다.



Flower + Object



## 필갤러리(곽동필 관장) 화예조형 - 오브제의 발견

꽃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갖춘 자연물이다.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여기에 시간의 한계성까지 더해지면 아름다움이 더욱 간절해진다. 가장 아름답게 피어있는 순간이 짧기 때문에 꽃의 매력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 자체로 완벽한 꽃과, 이를 담아내는 자연물인 오브제가 만나 ‘화예조형’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 지난 4월, 창원 중앙동에 위치한 필갤러리에서 ‘화예조형-새로운 오브제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화훼장식 전시회가 열렸다. 김필자 플로리스트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그동안 배우고, 만들고, 연구했던 화훼장식에 대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처음 화훼장식을 배울 때부터 공간조형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꽃을 공간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화예조형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전시회장에는 꽃과 나뭇가지, 나뭇잎, 나무껍질, 토피어리 등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꽃’이 있었다.

“꽃과 자연물을 같이 엮어 작품을 구성할 때는 자연물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해요.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질감, 색깔, 구부러짐 등을 활용해 꽃과 함께 조화롭게 설치하는 것이 화훼장식의 기본이거든요.”

사실 화훼장식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분야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훼장식이라고 하면 꽃꽂이를 떠올리기 쉬운데, 꽃꽂이는 그 일부일 뿐이다. 화훼장식은 전국화훼장식기능경기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양성되고 있고, 국가대표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해 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유망한 직업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화훼장식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 선수로 활동할 사람만 배울 수 있는 것일까? 김필자 플로리스트는 누구나 아름다움을 즐길 권리가 있듯, 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전한다. 조형 속에서 라인을 살리고 형태와 면을 맞추며 색을 구성하는 것 등 기본과정만 배운다면 누구나 간단한 인테리어 소품 정도는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경남지역에서는 필 플라워협회 아카데미를 비롯해 일반 꽃꽂이 학원, 예술학교 등을 통해 화훼장식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동양·서양 꽃꽂이반, 취미반, 전문가반 등 다양한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나라고 못할 것이 있으랴. 꽃을 사랑하고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꽃으로 작품을 만드는 ‘화훼장식’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온 집안을 꽃향기로 물들일 수 있으니 취미치고는 참 고상하지 않은가.



김필자 플로리스트

국가공인 화훼장식기사  
 복지원에서 2급  
 동양꽃꽂이 3급 사범수로  
 서양꽃꽂이 3급 / 2급 / 1급 사범 수료  
 국가공인민간자격 서양꽃꽂이1급 사범자격증  
 독일FDI 플로리스트  
 필플라워디자인협회 경남지회장 / 부회장  
 창원예총 문화예술학교 꽃꽂이 출강수업

# 조개껍질과 옷칠로 더 아름다운 통영 장사도

통영옷칠미술관 장사도 한국옷칠회화관



장사도가 보인다. 길게 누운 누에...  
섬 이름을 낮게 읊조리며  
찬찬히 다시 본다.  
해무에 반쯤 가려진 섬들과  
바위벼랑이 신비롭다.  
통영의 항구와 바다, 일상과 상념,  
보석보다 아름다운 조개껍질과 옷칠.  
장사도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려는 것일까.

Writer 진강숙 Photographer 이승훈



### 한국옷칠회화

수 천 년을 이어오고 있는 나전칠기의 나전과 채화칠을 주재료로 하는 새로운 장르의 회화. 옷칠재료의 물리적 특성인 방수(防水), 방부(防腐), 방충(防蟲) 작용과 옷칠의 미학적 특성인 광채, 장식성, 조각미 그리고 전통재료와 기법, 제작과정, 장인정신 등이 담긴 예술.



## ■ 근사한 여행의 시작

하늘빛 물보라를 일으키는 보트에 여유롭게 앉은 취재진. 불과 30분 전을 떠올리며 웃음을 짓는다. 일찌감치 도착한 통영. 시장 구경과 식사, 근사한 찻집에 들러 차 한 잔의 호사까지 누리고 한껏 여유를 부리며 승선 시간에 맞춰 여객선 터미널에 들어섰다. 그런데 “장사도 가는 배는 삼덕터미널에서 타셔야 되는데요?”...청천벽력이다. 새파랗게 질린 취재진 일행을 보며 터미널 직원도 적잖이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삼덕터미널까지는 족히 30분, 배 출발시간까지는 겨우 10분이 남았다. 황망한 가운데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 연락을 했더니 곧바로 보트를 준비해준다.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대한 반전에 취재진은 또 한 번 당황했다.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 앞에서 겸손해지는 사람들... 그들의 근사한 여행이 시작되었다.

## ■ 장사도

섬이 보인다. 장사도가 보인다. 길게 누운 누에. 섬 이름을 낮게 읊조리며 찬찬히 다시 본다. 한 시간 전에 놓친 배에서 승객들이 내리는 모습도 눈에 들어온다. 취재진을 태운 보트가 정박하고 땅을 밟기 바쁘게 동백을 찾아본다. 배는 운 좋게 따라 잡았지만 절기는 어쩔 수 없나보다. 10만여 그루의 핏빛 붉은 동백은 마음에 접어두고 드문드문 존재를 알리는, 늦게 핀 동백에 아쉬움을 달랜다. 크고 작은 전망대와 풍란, 석란, 작은 교회와 장사도 분교의 그림 같은 풍경에 취해 느릿느릿 걷는다. 분교 앞의 구실잣밤나무는 하늘을 모두 가려버릴 것 같은 풍채다. 이 나무는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바람을 막아주고 섬 생활의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을까? 생각하며 옷칠회화관으로 걸음을 옮긴다.



천혜의 비경을 안은 경남 통영시 장사도에 명품 전통공예 ‘옷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다. 한국 옷칠 예술을 경상남도의 브랜드로 알리고 한국 옷칠 회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 통영옷칠미술관 장사도 한국옷칠회화관

2015년 4월 25일, 천혜의 비경을 안은 경남 통영시 장사도에 명품 전통공예 ‘옷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다. 통영 옷칠 미술관 장사도 한국옷칠회화관이다. 지난해 가을, 장사도해상공원 김봉렬 대표와 통영옷칠미술관 김성수관장의 협약이 시작이었다. 이날 장사도 한국옷칠회화관에는 김성수 통영옷칠미술관장을 비롯한 옷칠작가 9인의 대형작품 33점이 걸렸다. 통영의 항구와 바다, 일상과 상념, 보석보다 아름다운 조개껍질과 옷칠.. 장사도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려나 것일까. “21세기 남해안 시대를 맞아 한국 옷칠 예술을 경상남도의 브랜드로 알리고 한국 옷칠 회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려고 전시관을 마련했다”는 김성수 관장의 말처럼 통영과 장사도,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 창의예술인 옷칠미술관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바라본다.

## ■ 대세 장사도

장사도 한국옷칠회화관 마당에 서서 바다를 바라본다. 해무에 반쯤 가려진 섬들과 바위벼랑이 신비롭다. 해방 직후 유치환의 안내로 미륵산 신선대에 올랐던 시인 정지용은 발아래 펼쳐지는 통영 시가지와 한려수도의 황홀한 풍경에 취해 말을 잊었다고 한다. 이후 부산, 통영, 진주를 둘러보고 쓴 기행문 ‘남해오월점철’에서 그는 말한다. “통영과 한산도 일대의 풍경 자연미를 나는 문필로 묘사할 능력이 없다.”고. 시인 정지용이 묘사할 능력이 없다는 말로 통영과 한산도를 극찬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천혜의 비경’이라 불리는 장사도는 말할 것도 없고 출발부터 돌아 올 때까지, 만나절 바라본 바다의 얼굴도 한가지로 규정할 수 없다. 그저 봄기운과 섬의 풍광에 어지러운 날이었다고밖에. 말로 다 묘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사는 장사도 사람들이 한없이 부럽다.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섬과 바다에 이제는 미술관까지.. 이제 장사도가 대세다.



경남메세나 매칭펀드 결연사업으로 개최된 해외공연입니다

# 베트남에 올려 퍼진 플루트와 국악 앙상블의 향연



지난 6월 8일 저녁 베트남 호치민시의 변화가에 자리한 Nhac Vien Concert Hall(낙비엔 콘서트 홀)에는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일찍부터 관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경남지역 최초의 플루트앙상블 연주단체인 '아이네플루트앙상블'이 경남메세나협회 해외사업 첫 단체로서, 베트남에서 콘서트를 갖는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 베트남-한국 문화우정의 밤

‘베트남-한국 문화우정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날 공연의 첫 순서로 마산오광대가 무대에 올라 풍물굿가락, 영남뿔배기춤, 버나죽방울 놀이 등의 전통연희를 선보였다.

한국인도, 베트남인도 너나할 것 없이 신명나는 풍물장단에 어깨를 들썩이고, ‘좋다~’라며 추임새를 넣어 흥을 더했다. 특히, 버나죽방울 놀이에서는 옛된 광대가 보여주는 신기한 재주와 해학 넘치는 재담에 박장대소하며 무대를 함께 즐겼다.

이어 아이네플루트앙상블이 무대에 올라 ‘Fairness of Fair(최고의 축제)’, ‘You raise me up(내게 힘이 되신)’, ‘The Entertainer Sting(영화 ‘스팅’ 주제곡)’ 등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명곡들을 플루트 특유의 맑고 깨끗한 음색으로 들려주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무대는 동서양 악기의 합동연주곡 ‘아리랑’으로서,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하기에 충분했다.



재미작곡가 안성민이 편곡한 곡을 김영 음악감독이 재편곡한 ‘아리랑’은 한국전통 국악기가 장르의 경계선을 넘어 서양악기 플루트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멋스러운 무대를 만들었다. 또한 해금과 거문고, 장구 등 해외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악기의 특성을 카덴차(반주 없는 독주)를 통해 들려주는 세심한 배려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한국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아리랑’과 ‘고향의 봄’을 들으며 고국의 생각에 몽클해하던 호치민 한인들은 잊지 못할 행복한 밤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 호치민 오페라 하우스 초청공연

호치민 한인성당 윤준원 신부는 “베트남에서 외국단체가 공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총영사관을 비롯하여 많은 한인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번 공연이 성사될 수 있었다”며, “모처럼 한국인들에게는 고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따스한 시간이었고, 베트남인들에게는 한국의 문화예술을 전할 수 있어 여러모로 뜻 깊은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튿날에도 공연은 계속되었다. 호치민 오페라 하우스의 정기연주회에 아이네플루트앙상블이 한국의 대표적 음악단체로서 초청된 것이다. 호

치민 시내 중심지인 동카이 거리(Don Khoi Street)에 위치한 호치민 오페라 하우스는 1897년에 프랑스 건축가 Ferret에 의해 지어졌으며, 800석 규모의 전형적인 유럽풍의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여행 필수코스임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도심 속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웅장하고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에서 연주자들은 전날보다 더 진지한 모습으로 연주에 임했다. 감미로운 플루트앙상블 연주에 이어 플루트와 장구·해금·거문고 등 국악이 어우러진 ‘아리랑’ 합동공연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낯선 분위기와 음악에 호기심을 보이던 현지 관객들은 어느 순간부터 연주에 흠뻑 빠져들어 곡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호응하며 이국의 연주자들을 힘차게 격려해주었다.

김영 아이네플루트앙상블 음악감독은 “민간연주단체인 아이네플루트앙상블이 전통 있는 호치민오페라하우스의 초청으로 그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지만, 무엇보다 한국전통음악이 서양악기 플루트 앙상블과 합동으로 어우러지는 공연은 한 번도 베트남에서 없었기에 이번 초청공연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특히 마산오광대와 함께 한 교민을 위한 연주회는 전석 매진으로 성황을 이뤄, 단원들 모두 문화외교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이네플루트앙상블은 베트남 공연에 이어 또 다른 시도로 관객에게 신선한 경험을 주기위해 11월 4일 하반기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경남메세나 매칭펀드 결연사업으로 개최된 해외공연입니다



## 산골아이들의 아름다운 도전



함양의 대표적 관악연주단 다별유스윈드오케스트라(대표 전계준)가 지난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 등 유럽 5개국 7개 도시의 순회공연을 다녀왔다.

### 다별유스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유럽순회공연 이야기

함양군내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총 80여명으로 구성된 다별유스는 2005년 창단 이래 꾸준한 연습과 정기연주회 개최로 나날이 발전하여 2009년에는 제주 국제관악페스티벌에 초청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고, 2012년에는 유럽 3개국의 초청을 받아 순회공연을 다녀오기도 했다. 산골마을 청소년 연주단체가 클래식 본산인 유럽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며 활약했던 이 사건은 두고두고 화제를 모았다. 그로부터 3년 뒤 다별유스는 여름의 시작과 함께 유럽 5개국 7개 도시로 2차 유럽순회공연을 떠났다.

물론 준비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특히 대규모로 움직이다보니 경비를 마련하기가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함양의 농기계 회사인 LS농기계(대표 임오완)에서 지역 예술단체의 어려움을 돕고자 가까이 메세나 결연을 맺고 경비를 지원해주었다.

이번 연주회는 아곱 드 한의 'Oregon', 한스 짐머의 'Roll tide'나 로메

인의 'Zeus : the king of the god' 같은 관악기 특유의 목직한 음색을 잘 살리는 곡과 함께 한국음악을 유럽인에게 알리고자 '볼레로 리듬과 행진곡을 위한 아리랑', '한국노래모음'도 선곡했으며 '캐리비안의 해적 中 세상의 끝에서'와 같은 영화음악을 통한 공감의 무대도 마련했다.

15일 오스트리아 뤼겐(뤼겐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6일 독일 슈벤가우(슈벤가우 야외무대) 17일 독일 한바흐(한바흐 아트홀), 19일 폴란드 카토비체(카토비츠 실레지안 필하모니홀), 21일 헝가리 데브레첸(데브레첸 필하모니 홀), 23일 루마니아 크라이오바(크라이오바필하모니홀), 25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한-루마니아 수교 25주년 축하공연 아테네움 홀)를 돌며 바쁜 공연일정을 소화했다.

16일 동안 연주여행을 다니며 다별유스 단원들은 오래오래 잊지 못할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에서 고산병으로 공연 중 코피를 흘릴 정도로 고생했던 일도 있었지만 끈기와 열정으로 극복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이 정말 많은 팁을 주어 단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다별유스 초등학생 단원들의 협연곡 '나팔수의 휴일'은 유럽 어디서나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헝가리 공연 때는 리허설 전에 아우라 대학교 교수들이 특별레슨을 해주기도 했고, 루마니아에서는 크라이오바 시장이 다별유스를 위해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시민들 모두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루마니아인들이 행복을 곱게 차려

입고 길거리 홍보에 나서었고, 거의 대부분 공연 후에 주민들이 지휘자의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청소년 연주자들과 기념촬영을 요청하여 모두를 뿌듯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유럽인들이 연주자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들이다.

### 한류스타가 된 다별유스, 루마니아에서의 마지막 공연

다별유스의 2차 유럽순회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한국-루마니아 수교 25주년 축하공연'이 7월 25일 아테네움 홀에서 열렸다. 객석은 만원이었고 관객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준비한 연주곡을 모두 마치고 앵콜 연주까지 마쳤으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립박수와 브라보 환호를 외쳤다. 이곳 루마니아는 K팝, 시극 등으로 한류열풍이 불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학에서도 제2외국어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신청할 정도로 한국어 과목이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한다. 교포가 통역을 해준 루마니아 현지인들과의 대화에서 현지인이 '지리산 아래, 조그만 시골마을에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연주단체가 생길 수 있느냐? 학생 모두가 음악을 전공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비전공자로 1주일에 한 번 씩 모여 연습을 한다고 대답하자 현지인들은 깜짝 놀라 '전율을 느낄 정도로 훌륭한 연주였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다. 연주가 끝난 뒤 몇몇 루마니아 관객들은 한국어로 '연주 좋았어요'라는 말을 건네주어 단원들에게 힘을 북돋워주었다. 공연을 관람한 박효성 루마니아 대사는 다별유스가 민간 외교사절단의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해 주었다고 하며, 어린 학생들의 연주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고 전했다.

공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다별유스 단원들은 16일간의 바쁜 연주여행 동안 쌓였던 노곤함으로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든 얼굴에서 아직까지도 흥분과 설렘이 엿보인다. 유럽의 드넓은 무대에서 펼쳤던 그 멋진 순간들을 꿈에서 다시 만나고 있는 것일까.



# Mecenat News

2015. 05. 23

## 슬로 시티 하동에서 한 잔의 차와 음악에 빠지다

### 경남메세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차향과 함께하는 음악회”

경남메세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기 위해 하동 야생차문화 축제장을 찾았다. 하동으로 가는 동안 수많은 꽃길을 만났다. 셋노란 금계국은 말 그대로 황금꽃길을 만든다. 하동이 물길과 꽃길로 이름 높은 고장임을 실감한다.



### 찾아가는 메세나 '지역민을 위한 GMPO 공연'

경남 18개 시·군의 문화예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메세나' 음악회가 지난 6월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무대에서 열렸다. 실력파 연주자들로 구성된 경남메세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GMPO)의 탁월한 선곡과 열정적인 연주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2014년 산청과 함양에서, 올해 상반기 창녕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하동에 이어 하반기에는 8월에 거제, 10월에 남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하동 야생차문화 축제 속에 경남메세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함께 했다. '차향과 함께하는 음악회'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지역 문화 살리기에 앞장서는 경남메세나협회가 정성껏 준비했다. 공연을 기다리는 동안 부스를 돌며 축제를 맘껏 즐겼다. 향도 맛도 느낌도 다른 차를 마시자, 차의 고장 하동에 와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된다. 기분 탓인가? 땅도 함께 울리는 듯하다. 신나고 웅장한 연주에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빈자리가 드물다.

김인호 창원시향 부지휘자와 경남지역의 정상급 연주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경남메세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테너 최요섭과 소프라노 백향미, 신유식의 색소폰 연주가 흥겹게 이어지는 '차향과 함께하는 음악회'는 마치 잔치마당을 연상케 한다. 고전음악과 팝과 가요와 어울리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격과 감동을 뛰어넘어 누구랄 것 없이 일어나 연주자와 함께 춤을 추고 어울리는 흥겨운 잔치마당. "농촌지역에도 이런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준 경남메세나협회에 감사드립니다."는 윤상기 하동군수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문화와 예술이 합쳐야지요. 앞으로 협회와 군과 기업이 행사 때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남메세나협회에 "군 지역에 문화예술 관람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 피로회복제

"두 다리, 세 다리로는 못 오지~! 네다리가 있으니 같이 오지~!" 건너나 지팡이 잡고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차를 타고 왔다는 분들. 하동군 화계면 덕은리 상덕마을 주민을 만났다. "색소폰 연주는 텔레비에서나 봤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저런 사람을 언제 봐? 아침부터 설쳐서 피곤했는데, 신나는 음악 듣고 색소폰 연주 들으니 피로가 다 풀렸어~!! 피로 회복제야~!!" 하며 엄지를 치켜세우는 서숙덕님은 자신의 차에 마을 어르신 세 분을 함께 모시고 왔다고 했다. 함께 온 이말레 어르신도 아주 좋았노라며 어깨춤을 덩실추어 보이신다.

박수를 유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박수가 나고, 누구랄 것 없이 손바닥이 벌게지도록 같이 장단 맞추고, 스스럼없이 일어나 어울리고... 신나게 공연을 누리고 돌아가는 이들의 얼굴엔 벅찬 미소가 그대로 남아있다. 모두가 행복한 얼굴들이다. 공연은 대성공이다. '차향과 함께하는 음악회'는 기업의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을 확산하고 문화예술발전과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경남메세나협회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2015. 05. 27

# 기업과 예술, 그림으로 어울려 소통하다!

## 기업과 예술의 두번째 만남 제2회 어울림과 소통전

경남을 이끄는 기업과 경남의 대표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이 어울려 만들어낸 작품들은 어떤 모습일까?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전시장에서 열린 '2015 어울림과 소통전'은 지역의 기업인과 작가들이 '작품'으로 만나 어울리고 소통하는 축제의 자리였다.



싱그러운 신록이 어우러진 계절. 창원 성산아트홀 제1, 2전시장에서 기업을 그림에 담는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번 '2015 어울림과 소통전'은 경남 각지의 작가들이 작품을 기업을 기증함으로써, 예술을 바라보는 기업인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최되었다. 전시장에 펼쳐진 작품들 속에는 경남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각각각색의 모습으로 담겨 있었다. 작가들의 창의성으로 새로운 옷을 입은 기업들은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 대신 특별한 색과 의미를 얻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어 기업 대표, 예술인 등의 축사와 작품 기증식, 커팅식이 열렸고, 모두가 함께 하는 전시장 관람으로 이어졌다. 기업인, 작가, 그리고 작품이 한 데 어우러진 전시장은 경남을 문화의 도시라 부르기 걸맞은 생생한 문화소통의 현장이었다.

기업의 이미지와 걸어온 길, 나아갈 방향 등이 담긴 작품들은 기업인

들의 눈을 반짝이게 했고, 기증하는 작가들을 뿌듯하게 만들었다. 예술을 주제로 나누는 대화는 그칠 줄 몰랐고, 기념샷을 마친 후에도 기업인과 작가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전시를 둘러보니 기업 고유의 이미지를 새로운 느낌으로 담아내고자 작가들이 고민하고 애쓴 결과가 작품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 작가에게나 기업에게나 뜻깊은 전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경남은행 직원들은 파트너 김재호 작가의 해설을 들으며 여유롭게 전시를 관람했다. 경남은행에서 갤러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수민 큐레이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BNK그룹의 붉은색 CI가 작품으로 멋지게 형상화되어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쏙 들어왔다"며, "작품의 상승하는 이미지처럼, 앞으로 경남은행도 더욱 승승장구할 것 같은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작품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경남전업미술가협회 천원식 회장은 "경남 작가들

의 순수한 재능기부로 이뤄진 '어울림과 소통전'은 기업들이 경남의 예술단체를 지원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업의 상징성이 담긴 작품을 창작하여 기증하고자 마련하였다"며 "이번 전시가 기업인들에게는 예술인의 창의적 사고와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미술인들에게는 예술가로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어울림과 소통전'은 지역의 탄탄한 예술행사로 자리매김하며, 또 한 번 기업과 예술의 완벽한 파트너십을 이뤄냈다. 함께 한 기업인, 예술인, 경남 지역민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듯하다.

기업과 예술이 만나서 소통하는 메세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이 날로 발전해나갈 거란 기대감에 전시장을 나서며 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다.



예술단체 워크숍

경남메세나협회의 중심 사업인 매칭펀드 결연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술단체 워크숍은 결연사업 안내, 예술행정 및 기획 강연, 정산 방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연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메세나에 관심 있는 도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15. 05. 28

# 기업과 예술단체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2015 경남메세나 예술단체 워크숍

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5월 28일 창원성산아트홀에서 기업과 예술단체가 보다 활발하게 결연을 이어나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2015 경남메세나 예술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5 경남메세나 예술단체 워크숍'은 날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을 효율적으로 이어나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남메세나협회 최재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지원금 집행의 철저한 관리와 기업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유도해 메세나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단체에 '뼈'와 '살'이 되는 유익한 워크숍

前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을 역임한 이용관 교수는 '예술마켓팅'이란 주제로 예술경영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예술단체가 지속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근원인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살아남는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기업과 예술단체 교류활동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동락문화예술연구회 박금숙 대표는 "(주)환웅정공의 도움 덕분에 우리 단체의 나눔 사업의 범위가 넓어졌고, 기업의 임직원들은 문화를 함께 공유하며 봉사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센트랄의 성명은 대리는 한국문화예술발전연구원과의 결연사례를 통해 "기업이 예술단체와 결연을 맺으려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를 제안하는 것이 기업과의 결연을 성사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또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정정옥 주무관은 경남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지원금에 대해 소개했다. 예술단체 입장에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령과 관련된 부분, 지원금 지원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부분을 쉽게 설명해 준 유익한 시간이었다.

8월 현재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결연이 성사된 예술단체는 96곳이다. 이는 수치상으로 역대 최대 성과다.

# 아버이의 가슴으로 배달된 감사와 사랑의 무대

## 아버이를 위한 행복 콘서트 문화나눔 행복나눔 공연

일 년 중 가장 따뜻한 마음이 되는 오월. 여기 그 따뜻함을 담아 예술로 표현한 아름다운 공연이 있다. 아버지날을 맞아 개최된 '행복한 나눔 공연'을 통해 진정한 가치 나눔을 실천한 경남지역 예술인들의 눈부신 활약을 들여다보자.

산들바람이 스미는 5월, 창원 성산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는 한차례의 아름다운 특별공연이 개최되었다. 아버지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경남메세나협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행복한 나눔공연'이다. 경남메세나협회는 행사에 앞서 인사말에서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재능을 펼칠 무대를 제공하고, 어르신들께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모두가 진정한 행복나눔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은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중창공연으로 시작되었고, 열정적인 밸리댄스 무대로 이어졌다. 우아한 가야금 연주, 경쾌한 아카펠라 합창이 행사의 풍성함을 더해갔다. 특히, 가야금 앙상블 '꽃가람'은 '아리랑', '민요메들리' 등을 고운 가야금 선율로 들려줬고, 또한 '배사메무초', '내 나이가 어때서'와 같은 인기 대중음악도 가야금으로 연주하여 색다른

행복한 나눔공연

2008년에 처음 시작하여 8년째를 맞고 있는 문화나눔 '행복한 나눔공연'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위해 경남메세나가 직접 찾아가 공연을 열어, 음악을 통해 기쁨과 차이를 전하는 사업이다.

2015. 05. 08



즐거움을 선사했다. 성악가들로 구성된 중창단 'season pass'는 유쾌한 퍼포먼스를 곁들여 'All by myself', '아빠의 청춘', '무조건'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환상적인 하모니로 들려줬다. 공연을 보는 내내 싱그러운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 속에는, 인생의 5월도 채 지나지 않은 소년과 소녀의 모습이 서려있었다. 흥겨운 박수와 춤은 막바지까지 식지 않았고, 그 덕에 모두가 잠시나마 무거운 세월을 내려놓은 채 맘껏 웃었다. 매년 치러지는 연례행사지만, 좋은 기획과 후원을 통해 이뤄진 예술은 언제나 많은 이에게 따스한 행복이 된다. 좋은 날, 좋은 의미와 함께 스며드는 경남의 문화예술은 푸른 5월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신명 난 춤사위로 마무리된 공연장을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웃음이 가득해 보였다.

# Mecenat 단신

경남메세나협회 2015 상반기 주요 소식

## 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

경남메세나협회는 2월 25일 창원 호텔인터내셔널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사 대표, 예술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는 피아니스트 이주은 창원대 교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최재호 회장 인사말 · 201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 2015년도 사업계획 발표 · 명칭 및 CI변경 · 임원선임 · 고문추대 순으로 진행됐다. 2014년도 사업결과 보고에서 협회는 창립 7주년을 맞은 2014년 말, 217개 회원사 보유 및 기업과 예술단체 115개 팀 결연으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까지 누적 예술 지원 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이 이뤄졌다. 최재호 회장은 “경상남도의 변함없는 지원과 창원시의 새로운 참여로 작년대비 11.7% 증액된 32억 3천여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을 130개 팀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다”며, “문화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문화나눔활동과 지역문화예술 경쟁력을 키우는 지역문화특화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CI와 명칭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우수 결연단체 초청 등 국내외적인 교류활동도 시도하여 경남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메세나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 임원 선임 변경사항

| 대상자              | 변경 사항       |
|------------------|-------------|
| 경남은행 황윤철 본부장     | 이사 → 부회장    |
| 경남농협 김진국 본부장     | 이사 → 부회장    |
| (주)인산가 김윤세 회장    | 이사 → 부회장    |
| 광득종합건설(주) 최광주 회장 | 일반회원사 → 부회장 |
| (주)한국아나세 우영준 회장  | 일반회원사 → 부회장 |

### 명칭 및 CI 변경

|                  |             |
|------------------|-------------|
| 유전공업(주) 류재기 회장   | 일반회원사 → 부회장 |
| (주)센트랄 강상우 이사    | 부회장 교체선임    |
| 범한산업(주) 정영식 대표이사 | 일반회원사 → 이사  |
| (주)경남스틸 최충경 회장   | 일반회원사 → 고문  |
| (주)센트랄 강태룡 회장    | 부회장 → 고문    |
| (주)경한코리아 이상연 회장  | 부회장 → 고문    |



## 창녕·하동·거제에서 '찾아가는 메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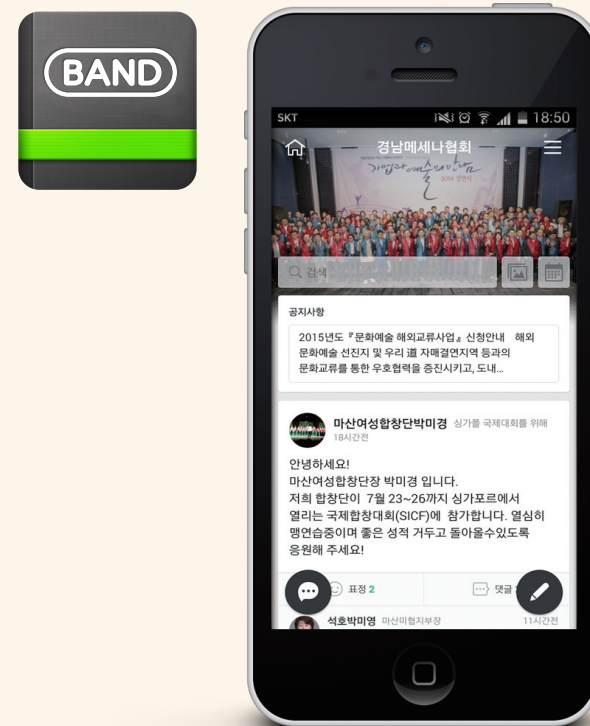
경남 18개 시·군의 문화예술 균형발전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중인 찾아가는 메세나 사업이 올해도 계속 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창녕군, 5월 21일 하동군, 8월 6일 거제시에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예술영재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협약을 통해 기업과 예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류기반을 조성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창녕남지유채축제, 하동야생초문화축제에서 경남메세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특별공연을 선보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8월 25일에는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거제시민들을 위한 힐링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 01

## 경남메세나협회 밴드 개설

메세나 정보 및 경남 문화예술 소식 공유를 위한 BAND '경남메세나협회'가 개설되었다. 도내의 공연 및 전시,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입방법 : 모바일에서 BAND 어플을 다운받거나, PC 네이버 BAND에서 경남메세나협회를 검색하여 들어가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 03

## 2015 '경남국제아트페어' 결산

경남 대표 미술거래 전문전시회 '2015 경남국제아트페어(GIAF 2015)'가 지역의 유망 미술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6회째를 거치면서 지역민과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미술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7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된 경남국제아트페어는 모두 142개 부스에 경남을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아산 등 전국 각 지역의 유명 갤러리들이 참여했다.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도 개인부스나 갤러리 참여 전시를 통해 지역미술의 저력을 보여줬다. 또 특별기획전으로 '20세기 거장전', 설치미술 'A-trunk 프로젝트', '프린트 베이커리'도 함께 열렸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그림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 그림 판매액은 지난해 2억4800만원에서 올해 6억3500만원으로 2.5배가 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관람객은 전년도 6400여명에서 올해 7200여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유료입장으로 전환된 첫해라 관람객 감소가 우려됐지만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갤러리 참여도 늘었다.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마련된 특별관과 기획전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외국작가 및 화랑초대전 8개 부스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5개국의 작품을 통해 세계 미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었다. 또 '20세기 거장전'에서는 잭슨 폴록, 앙리 마티스, 파블로 피카소, 마르크 샤갈 등 총 23점의 유화 및 판화작품이 걸렸는데, 도내에서 보기 힘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다. 도내 미술계 관계자들은 “메르스와 유료 전환이라는 변수가 있었음에도 관람객 수가 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수천만원짜리 작품들이 거래되는 모습을 보면서 경남미술시장의 희망을 보았고, 점진적인 양적·질적 성장은 향후 아트페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개인보다는 화랑이나 갤러리를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점, 좋은 갤러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미술 마니아층을 두텁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아트페어 운영에 있어 탄탄한 재정적·인적 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휴게공간 부족이나 효율적인 동선을 위한 부스 배치, VIP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리 등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52999>  
본 기사는 경남신문 7월 9일자에 게재된 제휴기사로서 문화부 강지현 기자가 작성하였습니다.



# 경남메세나 회원사

GYEONGNAM  
MECENAT MEMBERS

##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            |             |             |            |              |
|------------|-------------|-------------|------------|--------------|
| (주)무학      | (주)고구려      | 무림페이퍼(주)    | (주)애드테크    | 초심공업(주)      |
| 도남실        | (주)고려철강     | 문운수치과의원     | (주)에스에이치아이 | 최익수의원        |
| 임경숙        | 고운치과병원      | 미르치과의원      | 에이스브이      | 추고쿠삼화페인트(주)  |
| 경남오페라단     | 광신기계공업(주)   | 미조종합건설(주)   | 영광산업       | (주)케이씨       |
| (주)한국아나세   | (주)구구       | 미즈맘 여성병원    | (주)영남엘피씨   | (주)코텍        |
| 광득종합건설(주)  | (주)국제전기     | (주)베스트엔드베스트 | 영민테크       | 쿠쿠홈시스(주)     |
| 유전공업(주)    | 그린산업(주)     | (주)보강기업     | (주)영신화공    | 태광실업(주)      |
| 삼원테크(주)    | 그림갤러리(주)    | (주)부경       | (주)영일정공    | (주)태완정공      |
| (주)센트랄     | (합자)금강전기공업사 | 부산교통(주)     | (주)영진테크    | (주)태현메가텍     |
| 우수AMS(주)   | 금강중기        | (주)부일이엔씨    | (주)영창기업    | (주)포스텍       |
| 경남은행       | 금성이노텍(주)    | (주)부평디엔피    | 에인여성병원     | 세아자원특수강      |
| 농협경남본부     | (주)금솔개발     | (주)복성산업     | (주)오곡산업    | 피케이밸브(주)     |
| (주)인산가     | (주)기산산업     | 비에이치아이(주)   | 오션커뮤니케이션즈  | 하이 에어코리아(주)  |
| 청호산업개발(주)  | 기산산업(주)     | (주)사릭       | (주)옥산아이엘티  |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
| (주)ONE     | 김선경외과의원     | (주)산호수출포장   | 원 한의원      | 한국소니전자(주)    |
|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 김순태치과의원     | (주)삼보산업     | 원광산업석재     | (주)한국자연환경    |
| 이동찬        | 김해시공영(유)    | 삼우금속공업(주)   | (주)웰템      | 한국정기공업(주)    |
| 경원벤처(주)    | 낙우산업(주)     | 삼원동관(주)     | 유니온엔지니어링   | 한국제강(주)      |
| 리베라컨벤션     | 남명산업개발(주)   | (주)삼전건설     | 유림건설(주)    | 한국태양유전(주)    |
| 범한산업(주)    | 남양매직(주)     | 삼정기업        | (주)유림철강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 산골농장       | (주)네오씨티알    | (주)삼정터빈     | 윤한의원       | (주)해동설계종합건축사 |
| 신화철강(주)    | 대경건설(주)     | 삼흥열처리       |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 해성메탈(주)      |
| 원광종합건설(주)  | (주)대동주택     | 상남굿모닝내과병원   | 의료법인성남의료재단 | 해수종합건설(주)    |
| 김도기        | 대방스페셜스틸(주)  | (유)상화도장개발   |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 현대공영(주)      |
| 한국민예총경남지회  | 대선주조(주)     | 서순련         | (유)이삼사보이호텔 | (주)현대기업      |
|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 대신금속(주)     | (주)서영시스템    | (주)이앤티     | (주)해동        |
| 한림건설(주)    | (합)대신전기공업사  | 선린자모의원      | (주)이우      | 호성           |
| (주)현대단조    | 대한전선전기(주)   | 성부가스산업(주)   | 인산죽염촌(주)   | (주)호텔인더내셔널   |
| 화성G&I(주)   | (주)대호엠엠이이   | (주)성우       | 인화정공(주)    | 흥기종합건설(주)    |
| (주)화영      | (주)덕광중공업    | (주)성환금속     | 일림나노텍(주)   | 화이트치과        |
| (주)화인테크놀로지 | (주)동구기업     | (주)세복       | (주)장생도라지   | 화일종합건설(주)    |
| the큰병원     | 동명다이아몬드     | (주)세양정공     | (주)장성E.P.S | (주)화영        |
| 가이(BS)(주)  | 동양특수금속(주)   | (주)세호테크     | (주)장한      | (주)화인에이티씨    |
| (주)강민종합건설  | (주)동오프랜지    | 속편한내과       | 정남종합건설(주)  | (주)팬코리아중공업   |
| 강산기술검사     | (주)동은화학     | 승진기계(주)     | (주)정문애드테크  | (주)환웅정공      |
| 거제레이콘(주)   | 동인하이텍(주)    | 시영건설(주)     | 주용테크       | 흥일기업(주)      |
| 거제시문화예술회관  | 동환산업(주)     | 신광에이스전기(주)  | 중앙건설(주)    | PS엔터테인먼트     |
| 거제컨벤션웨딩부페  | 두남화학        | 신대양(주)      | (주)중앙금속    | STX조선해양(주)   |
| 경남개발공사     | 디씨엠(주)      | 신동방산업(주)    | 중원종합건설(주)  | STX엔진(주)     |
| 경남스틸(주)    | 디케이락(주)     | 신오폴드시스템(주)  | (주)지에스비    |              |
| 경남신문       | 라온산업개발(주)   | (주)신우공업     | 창원상공회의소    |              |
| 경남자동차판매(주) | 마산정안과       | 신창기계        | 창원서울이비인후과  |              |
| 경원여객자동차(주) | (주)마창대교     | (주)신한물산     | (주)창원자동차학원 |              |
| (주)경한코리아   | 명제한의원       | (주)씨노텍      | 청아의료재단     |              |



#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유일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 & Business

**결연사업\_**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어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사내공간, 티켓구매, 직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및 직원예술교육, 공연 초대, 기업 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술단체워크숍\_**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 회원사 지원 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_** 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 예술동아리 등을 지원합니다.

**어울림과 소통전\_** 기업의 모습을 미술작품에 담아드립니다.

**문화공감/문화경영도서\_** 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정기탁\_**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회원사의 각종 후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드립니다.

##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_** 문화소의 이웃을 찾아가 공연을 제공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넓히고 있습니다.

**즐거움 나눔티켓\_** 도내 복지시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관람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 회원사 가입 안내

경남메세나 회원사가 되어 문화예술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십시오.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서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손비인정, 개인은 연간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해드립니다.  
회원사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메세나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gnmecenat.or.kr - 메세나가족 - 회원사가 되시면

## 연구 및 홍보 사업 Development

**홍보지 '경남메세나' 발간\_**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알리고자 연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남메세나포럼\_**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_**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_** 경남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발전 협약식 및 간담회, 지역민을 위한 GMPO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_**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_**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합니다.

**경남A&B오케스트라\_** 직장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예술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어갑니다.

##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개최\_**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 시행\_**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합니다.



내일을 향한  
새로운 도전

# 상공회의소가 응원합니다

기업경영의 든든한 동반자,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이 되십시오.  
기업의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창원상공회의소**

T. 055) 210-3030

# Vision to the Future!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기업 (주)한국야나세



**KY** (주)한국야나세  
KOREA YANASE Co.,Ltd.

본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미더덕로 64 T. 055-271-0785 / F. 055-271-0786  
Mail\_ yanase@koreayanase.co.kr Home\_ www.koreayanase.co.kr

통영조선소  
통영시 서송정길 48 T. 055-643-3060 / F. 055-643-3064  
Mail\_ sales@kyship.co.kr Home\_ www.kyship.co.kr

좋은세상 만들기,  
**좋은데이가  
함께합니다**



## 네팔 굿데이 스쿨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아이들을 위하여

해발 약 1,800m의 량탕 지역에 건립된 '네팔 굿데이스쿨'은 네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주)무학에서 학교 건립 비용 전액 후원과 좋은데이나눔재단이 직접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건립된 희망학교입니다. '네팔 굿데이스쿨' 완공으로 량탕지역의 부족한 학습환경이 개선되어 기존학생 135명 외에도 학교를 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